테마칼럼 | 대중요의 초대 | 이세상 저세상 | 빛고을에 살며 | 경제로 세상읽기

꿈의 힘

안톤 숄츠

"광주에 온 전세계 사람들과 문화·비전 등 생각의 공유를 통해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가 되는 꿈은 어떠한가?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면 결코 바라는 미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 믿는다."

며칠 전 전라남도에 관한 잡지를 발행하는 친구와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론의 주제는 왜 F1국제 자동차경주대회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은 문제와 직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실현되기까진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서였다. 놀랍게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본 문제점 중 하나가 광주와 전남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그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성공할 거라는 가능성과 그로 인한 변화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였다. 그리고 이 경우는 지방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은 실패할 거라고 믿는 서울, 경기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왜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일까?

정치, 경제, 스포츠,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모든 일이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이야말로 아마도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더 심한 수도권 중심의 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책이 아니며 거대한 머리만 갖고 지탱할 몸뚱어리는 없는 나라로, 결국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지 못해 사회는 균형을 잃거나 무너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지역간의 불균등한 발전에서 오는 문제를 지각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좋은 취업자리나 세련된 도시 스타일 등의 부족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막상 변화가 시작되면 그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

모든 것은 꿈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꿈의 나라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후진국에서 벗어나 첨단 과학기술을 이끌어 가는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된 한국을 동경한다. 무언가를 바꿔보겠다는 꿈 없이 어떻게 이런 신데렐라와도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꿈꾸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국사람들은 꿈꾸는 것을 그만둔 것일까? 아니면 오직 서울에서만 꿈꾸는 것이 허용되는 걸까?

만약 우리 생애에서 무언가 변화를 원한다면 한국은 필사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분산시켜야 한다. 그것도 당장에 말이다.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빨리 진행되지도 않겠지만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일이다. 지구상의 모든 강대국들을 보면 각 나라안에는 각 지역마다 내세우는 강한 비즈니스 분야가 있고 지역마다 차별화가 되어있다. 왜 이것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인가?

어쨌든 본래 내가 언급하고자 한 '꿈의 힘'이란 주제로 다시 돌아가보고자 한다.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힘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많은 경우를 통해서 그 힘의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가령 지난 2002년 한국 국가대표축구팀이 준결승전까지 승리를 이끌어 갔던 순간이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꿈의 힘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그들의 선전이 그들의 기량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수백만 관중들의 꿈으로 이루어진 집단공동체의 힘이었을까? 내 생각에는 후자의 힘이었을 거라고 본다. 이렇듯 한국사람들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왜 광주나 전남도가 변할 수 있다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일까? 이제껏 한국역사에 없었던 세계를 무대로 이 지역에 보다 많은 외국인과 미디어의 주목을 가져다 줄 F1 경주의 성공적인 개최를 꿈꿀 수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전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문화, 생각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공유를 통해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가 되는 꿈은 또 어떠한가? 나는 감히 말하건대 만약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면 결코 그와 같은 미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내려다 보고 이 지역 많은 사람들도 큰 일은 서울이나 그 근처 밖에서는 치를 수 없다는 그들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나로 말하자면 꿈꾸는 자다. 이전에도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제 이 글의 끝은 존 레논(John Lennon)의 노랫말을 빌어 마무리해 보고자 한다.

'어쩌면 당신은 날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나만 그런 건 아니죠. 언젠간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길 바래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가 되어 살아가겠죠.'〈노래 'Imagine' 중에서〉

〈조선대 독어교육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종교칼럼

박철수

슬픔의 에너지

어려서부터 세뇌 될 만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일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입가에 실없는 웃음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있을 나의 장례식 때 누가, 나를 보내는 마지막 말을 해줄까? 그리고 그는 무엇을 말할까? 사람들은 어떤 표정과 마음을 하고 있을까?

물론 내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한사람의 죽음 앞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참으로 이별을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야 말로 그 시간에는 내가 뿌린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때부터 안장식때까지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함께 죽는 체험을 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집권할 때 그분의 정책에 반대를 하며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미국의 포악한 전쟁터로 내모는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며 여러 신부님들과 함께 이라크 파병 반대를 위한 단식기도를 하였습니다.

고귀한 생명들을 국익이라는 초라한 변명을 꾸며대며 사지로 내보내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분개 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미군의 장갑차에 숨진 미순 효순이의 죽음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을 미국에 요구하지도 못한 나약한 정부이기에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차디찬 얼음물에 사는 빙어처럼 투명하고 정직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기에 자신의 오점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자신을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퇴임후 행복하게만 보이던 그분의 걸음 걸이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시간을 다투면서 검찰과 언론은 그분을 파렴치한 잡스런 범죄인으로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온 국민은 오열하였습니다. 서거부터 안장식때까지 평범에도 미치지 못한 몇사람을 빼고는 모든 국민들이 그분과 함께 죽음을 체험하면서 서럽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쏟아내며 슬퍼했습니다. 그분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이름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희망으로 새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슬픔은 온국민이 이 암흑의 시대를 이겨내는 강하디 강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가 일궈내는 사랑의 에너지이듯 말입니다.

〈산수동성당 주임신부〉

기고

전갑길

광산구 미래와 발전 방향

우리 광산구는 민선4기 3년 동안 강도 높은 행정혁신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함으로써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활기 넘친 지역경제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생산적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프로젝트 추진, 전통문화 계승, 각종 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 등을 통해 모범적인 도시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 직원들은 민선4기 3년간 '인구 50만의 명품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 공직자들의 땀과 눈물, 전 구민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가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다.

이 같은 성과는 외부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입증된다. 지역산업정책대상 최우수상,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3년 연속 선정, 복지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국가생산성대상 2년 연속 대상, 지방행정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구, 청렴도 우수기관,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모두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지난 3년간 총 140건 수상에 62억5천2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특히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아래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광산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마련,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있다.

외부 용역과 보고회·워크숍 등을 통해 마련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생태환경도시, 문화·관광도시, 선진복지·교육도시, 첨단산업도시, 창조적 거버넌스도시 등 5대 목표를 통해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고품격 명품도시 광산'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형 도시공간 재창조, 일상과 호흡하는 문화예술,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공동체, 첨단산업밸리 조성 등 10대 핵심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공간, 교통, 환경보존, 문화·관광, 복지, 교육, 산업, 농업, 행정 등 9개 분야의 세부 정책을 담았다.

무엇보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천혜의 자연조건, 광주의 경제중심지, 교통의 요지, 전통과 현대의 공존, 도·농 복합도시 등 광산구의 보유자원과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한데서 출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광산구는 50만 인구시대를 대비하고 친환경적,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장기종합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세부계획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다소간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큰 틀은 어떤 흔들림도 없이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서남권의 중추 거점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광주시 광산구청장〉

대중가요속 '여성 성 상품화' 이젠 사라져야

우리 사회의 그릇된 여성관과 여성에 대한 상품화는 오래전부터 문제시돼왔다. 그래서 이 같은 편견과 상품화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미스코리아, 탤런트·수퍼모델 선발대회들이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유독 노래만큼은 줄지 않는듯 하다.

얼마 전 길거리를 지나다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어보니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아주 그냥 죽여줘요"라며 작정을 하고 여성을 성적 도구로 표현했다. 정말 기가 막혔다. 집에 돌아가서 딸 아이한테 물었더니 요즘 그게 유행하는 노래인데 한때는 엄청 인기가 있었다나? 지금은 시간이 좀 흘러서 인기가 수그러들었을 뿐 원래 유명한 히트곡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박성과 고민 없는 생각, 무례한 행위 등 혼란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의와 질서를 지키고 좀더 가치있는 생각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박종심·목포시 동명동

수돗물도 소중한 자원…아껴쓰는 인식 필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한 뒤 주방 쪽을 바라봤는데 수도를 틀어놓고 설거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물을 아끼려는 마음은 애당초 없는 듯했다. 멀찍이 식당 홀에서 바라보는 내가 더 조마조마하고 쫓아가서 물을 꺼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정도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었는데 이렇듯 헤프게 물을 소비해도 좋은지 안타깝다. 따져보면 그 아주머니만 나무랄 게 아니다. 물을 아끼자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우리들 의식 속에는 수돗물 정도는 허드렛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돗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불신 받는 수돗물을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로 인식하도록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수돗물이 계속 불신을 받는다면 물 낭비는 가속화될 뿐이다. 검증 없이 무턱대고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동

사설

'신종플루 지역확산' 방역 만전 기해야

신종 인플루엔자가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환자 수는 모두 10명으로 증가했다. 5월 첫 발병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신종플루는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늘면서 16일 현재 174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나 사회적 경각심과 대책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신종 플루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신종플루 감염자의 치사율이 전 세계적으로 극히 낮은데다 국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신종플루는 언제 치명적 질병으로 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이다. 신종플루가 창궐한다면 백신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격리병실이나 전문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될 경우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많은 학생과 직장인들이 외국에 나가는 한편 외국에 나갔던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신종플루가 확산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일단 방학이 되면 학생들 관리가 쉽지 않은 데다 각종 행사나 해외연수가 마무리 되는 다음달이 신종플루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신종플루는 기온이 떨어지면 더욱 확산되기 쉽다. 올 가을 광주에서는 세계광엑스포와 디자인비엔날레 등 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잇따라 계획돼 있다. 신종플루라는 복병을 만나 애써 준비한 지역의 다양한 행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일이다.

보건당국은 더욱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개인 위생을 보다 철저히 하고 의심이 들면 곧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 지역상품 고작 21%라니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슈퍼(SSM) 등 광주지역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가 형편없다. 광주 YWCA가 광주시에 진출한 25개 대형 유통업체의 17개 품목에 대한 지역상품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21.5%에 불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지역 토종상권을 무너뜨리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상품은 홀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지역상품 점유율은 겨우 11.2%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부산지역 대형마트의 26.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업형 슈퍼와 백화점은 각각 24.7%, 28.7%로 대형마트에 비해 다소 높으나 이들이 지역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지역상품 비중은 너무 보잘것 없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는 지역기업에 도움을 주고,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을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보듯이 지역 내 대형유통업체와 지역기업의 상생경영은 겨우 생색내기 수준이다. 또한 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하다. 지역 내 자금이 지역에서 순환이 안 되는 것이다.

대형유통점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내세우는 고용창출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럽다. 기존 상권에 종사했던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내몰린 반면 이들 업체에 채용된 사람들은 거의 비정규직이다. 고용 측면의 지역 기여도 역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광주는 지역경제 규모에 비해 대형유통업체 수가 비정상적이다. 경제규모가 광주의 2~3배에 달하는 부산의 대형유통업체가 10개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신규 대형업체의 진출을 억제하고 지역상품의 일정 비율 구매를 강제하는 등 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외면하는 대형유통업체는 찾지 않는 지역민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無等鼓

착한 드라마

'그저 바라보다가' '가문의 영광' '결혼 못하는 남자' '찬란한 유산' 이 네 드라마의 공통점은 뭘까? 답은 '착한 드라마다'

불륜과 배신 그리고 복수로 점철된 소위 '막장'코드의 드라마는 가고 착한 드라마가 뜨고 있다. 그 선두주자가 SBS 일요드라마 '찬란한 유산'이다. 시작부터 꾸준한 시청률 상승을 보이더니 최근 40%를 넘어섰다. 명실상부 국민드라마 반열에 올라섰다.

'찬란한 유산'은 낯뜨거운 노출이나 거친 폭력이 없고 심한 욕설도 듣기 어렵다. 올초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SBS 일일드라마 '아내의 유혹'이 갈데까지 간 드라마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극과 극이다.

성공의 비결은 그동안 극한 상황과 표현이 난무하는 '센 드라마'에 질린 시청자들의 변화욕구를 잘 읽은 기획의도에 있다. 유산과 핏줄이라는 보편적인 사회 갈등 속에 애정, 권력 등의 대립 구도를 담았지만 막 가지 않고 비교적 건전한 길을 잡았다. 줄거리도 탄탄하다. 주말드라마에 기업경영권 갈등이라는 미니시리즈식 주제를 믹스, 흥미를 높였다. 막판으로 가면서 반전을 기대하게 하는 것도 인기비결이다.

이 드라마는 그동안 여성시청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주말 드라마에 남성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드라마 주 시청층인 30~50대 여성비율(38.4%)보다는 적지만 시청자 가운데 30~50대 남성비율이 21.5%나 된다. 여주인공 한효주의 무공해 이미지와 드라마의 깔끔함이 잘 어우러진 결과다.

또, 우아함의 상징이었던 여배우 김미숙의 변신도 이 드라마의 품격을 높여준다. 30년 만에 맡은 악역으로 '명품 악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종영을 앞두고 있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잔잔한 내용과 좋은 배우, 그리고 좋은 캐릭터만으로도 얼마든지 웰메이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착한 선례'를 보여주는 드라마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